



“韓方醫保 조기정착에 總力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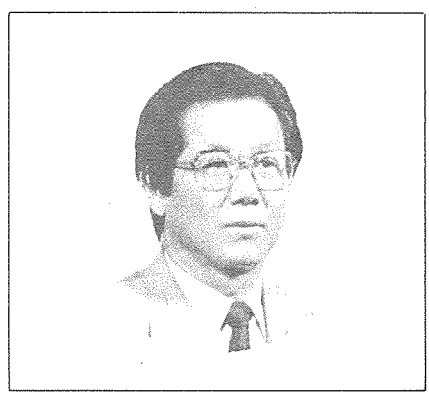
治療醫學으로의 면모 갖춰 韓方이용을 높일터

『금년을 韓方 醫療保險 정착의 해로 삼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등 集中的인 事業을 전개해 나가고 治療醫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韓方의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對國民 계몽 및 홍보에 힘쓰는 한편 韓方醫療의 現代化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도 힘을 기울여 韓醫學의 발전과 國民醫療福祉 향상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大韓韓醫師協會 安榮基회장 (安榮基韓醫院 원장)은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韓方의료보험을 국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의료 공급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우수한 의료기술로 질병퇴치에 힘써 韓方醫保의 조기정착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安회장은 韓方醫保의 전국 확대실시로 전 국민이 저렴한 酬價로 양질의 韓方醫療를 受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료 시혜면에서 洋方과 동등하게 의료발전의 모색은 물론 韓醫學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한방의보의 실시가 韓醫界에 안겨주는 意義가 크다고 말한다.

특히 韓醫界가 지난해에 우리 民族醫學의 고유명칭인 「韓醫學」으로 개칭하여 의료법을 개정토록 한 것과 政府로 하여금 韓方醫保의 전국 확대 실시방침을 수립케 한 것은 국민보건은 물론 韓醫學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韓醫界는 새로운 국민의료 제도권에 참여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보험의료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受容態勢 확립에 힘써나간다고 다짐한다.



◇ 安榮基 회장

『그러나 한방의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藥 복용상의 불편한 점이나 天然物인 藥材의 취급 및 보관, 藥價문제, 그리고 X-ray나 병리검사 등을 통한 진단방법의 객관화등 연구·개발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安회장은 시대 조류에 맞는 한약재의 개발은 물론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한 농축진공포장, 복용 간편한 액기스 제제의 생산과 함께 첨단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의학의 현대화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韓方醫保의 급여 범위는 △진찰 △입원과 △鍼·灸·附 針치료등 手術부문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韓方醫保는 당분간 한약처방에 대한 급여가 제외돼 보험급여 대상범위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26개 한약처방에 필요한 68개 단미제제 전부가 생산공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약제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

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므로 늦어도 4월부터는 26개 처방으로 생산되는 완제 한방제제도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회장은 지난 2년간 충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방의보 시범사업이 별무리없이 수행되었던 점을 감안,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방의보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급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따라서 시행초기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가 앞장서서 한약재 유통체계를 정돈하는데 힘쓰고 한의약 전문인에 의해 한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의약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한의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國立韓醫學연구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방의료의 현대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다.

특히 한방의료의 현대화를 위해서 현재 國會에 계류중인 한방보건진료 의료법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공의료부문에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軍陳의료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다.

『한방의료의 현대화는 정책적인 지원부족과 제도적인 문제점 등으로 洋方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보건의료 정책이 洋方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각종 의료복지 시책사업에 한방의료이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없어 한방교육의 질적향상이 둔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회장은 이제부터라도 한방의학을 우리 고유의 民族醫學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韓·洋方 의학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제3의학으로의 발전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

인다.

이와 함께 한방의학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고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인식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 학술행사의 개최 및 참여를 통해 한방의학의 國際化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다.

특히 오는 88년 서울올림픽 文化行事의 일환으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제5차 國際 東洋醫學 학술대회의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이 대회에는 세계 45개국의 관계전문가 5백여명이 참석, 「치료의학으로서의 東洋醫學」이라는 주제의 최신 연구 논문 및 임상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올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WHO 서태평양지부의 11개국대표 30여명을 초청하여 제3차 침구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中國에서 개최되는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에 4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최신 정보를 교환할 작정이라고 밝힌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미수교국가와의 한방의료 교류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인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확고한 醫師像 확립을 위한 補修教育을 1년에 두차례씩 실시하는 한편 협회 산하 大韓韓醫學會를 중심으로 한의학의 학술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임상기술 연마에도 힘쓰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1952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大韓韓醫師協會는 산하에 13개 市道별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市郡分會가 조직되어 있으며 모두 3천8백여명의 韓醫師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새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韓醫界는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시한번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확고히 하는 한편 한방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회장은 우리나라에 한의사제도가 수립된지 35년만에 의료제도권에 진입하는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앞장서 2천년대를 향한 福祉社會 건설에 최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權光仁 記)